



중등교원임용 전공역사 대비

2024 최신 개정판

# 서양사

선생님을 위한

김태규 편저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중세 유럽 세계의 역사

근대 서양 세계의 역사

현대 서양 세계의 역사

이슬람 세계의 역사

## 머리말

최근까지 역사 연구의 현장에서 유럽중심주의는 세계사 인식의 주요 담론으로 기능하고 작용해 왔다. 서구에서 유럽중심주의는 그 기원을 르네상스에 두고 있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확장된 근대 유럽 사회의 고유한 현상이다. 그래서 유럽중심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주요 인자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대성을 향한 모범적 거울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본격화된 지구화와 정보화로의 이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의 일상과 관련한 모든 부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크나큰 변화를 동반하여 세계사와 세계사 연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각종 서양사 개론서나 단행본과 같은 연구서적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은 주로 거대담론의 비판이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미시적 그물망, 지역경제 간 상호교류와 그 영향으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상호의존체제의 형성 등을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연대기적 흐름이나 맥락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 유럽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기획된 세계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이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서유럽 및 그들과 연계된 세계 각 지역의 역사에 대한 흐름과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는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것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될 현장의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수없이 많은 세계사의 사실들과 사건들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결할 것인가, 또는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직종과 상관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는 서양 역사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주요 지역세계(서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다루었다. 본 서양사 책에서는 총 다섯 파트로 내용을 구성하여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는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서양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배열했고, 파트 5에서는 이슬람의 역사를 간략히 추가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이번 서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파트별 임용고시 기출문항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좀 더 쉽게 기출된 문항들의 사례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각 파트와 챕터별로 해당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단원의 구조도를 추가하였다.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고 맥락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 본다.

셋째, 새롭게 기출 경향 분석 내용을 추가하여 기출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 출제 가능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넷째, 20여 년간의 기출 문항이 출제된 부분을 본문에 표시했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며, 학습량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해당 시기별 관련 사료와 지도·이미지 등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적절히 재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내용의 재배치를 통해 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여섯째, 해당 내용이 많아 문장으로 표현하기 불편한 부분은 표로 정리해 보다 깔끔하게 처리했다.

일곱째, 연도 표기나 인명 표기와 관련된 실수들을 바로 잡고 간결한 내용으로 압축하고자 했다.

여덟째, 각 챕터별 내용은 개론서 및 시대별 단행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족한 내용과 빠진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좀 더 편한 단권화 교재로 만들고자 했다.

수험서의 성격상 이 책은 많은 대학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차용했다. 서적에 담긴 모든 내용은 서양사에 관한 주요 개론서와 몇몇 단행본 그리고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을 간추리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많은 분들의 학문적 업적에 누를 끼쳤으며, 그분들의 명성에도 흠결을 가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책 말미에 참고문헌을 명시했다. 수험생 여러분의 현안으로 원문의 탁월함과 유려함을 느껴보길 바란다. 부족한 서적이 나올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문각 출판 편집팀의 송은정 님과 책과함께 출판사의 유종필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차례

**PART 01**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Chapter 01**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

01 오리엔트 세계의 역사적 전개	... 13
02 이집트 문명	... 15
03 메소포타미아 문명	... 22
04 동부 지중해 연안의 민족들	... 28
05 고대 서아시아 세계	... 30

**Chapter 02**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01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 38
02 폴리스의 성립과 발전	... 42

**Chapter 03**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01 민주정치로의 발전	... 56
02 페르시아 전쟁	... 58
03 아테네 제국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 60
04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리스의 쇠퇴	... 63
05 그리스의 사회·경제·문화	... 69

**Chapter 04** 헬레니즘 세계: 영토 왕국들의 성쇠

01 헬레니즘 세계의 정치	... 75
02 헬레니즘 시대의 사회·경제·문화	... 79

**Chapter 05** 로마 제국: 공화정기

01 왕정기	... 82
02 공화정 초기	... 83
03 공화정 후기	... 93

**Chapter 06** 로마 제국: 제정기

01 제정 초기	...102
02 제정 후기: 제국 체제의 해체	...107
03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티교	...112

**PART 02** 중세 유럽 세계의 역사**Chapter 01** 민족 이동과 프랑크 왕국

01 게르만족의 이동	...130
02 프랑크 왕국의 성쇠	...133
03 2차 이민족의 이동	...142
04 비잔틴 제국의 성쇠	...144

**Chapter 02** 중세 봉건 왕국의 성립

01 봉건제도와 장원제도	...152
02 영국	...157
03 프랑스	...160
04 독일과 북유럽 3국	...161
05 동유럽과 슬라브족	...163

**Chapter 03 중세 교회의 발전**

01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개혁 운동	…166
02 교황권의 확립	…169
03 십자군 전쟁	…174
04 교황권의 절정과 쇠퇴	…180

**Chapter 04 봉건 사회의 발전**

01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달	…191
02 중세 봉건 왕정의 발전	…199
03 중세 서양의 문화	…209

**Chapter 05 봉건 사회의 붕괴**

01 장원제의 붕괴와 농촌 및 도시의 변화	…226
02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로의 발전	…234

---

**PART 03 근대 서양 세계의 역사**

---

**Chapter 01 르네상스, 서유럽의 지리적 팽창,  
그리고 종교개혁**

01 르네상스	…246
02 서유럽의 지리적 팽창	…256
03 종교개혁	…267

**Chapter 02 근대 서양 사회의 발전**

01 절대왕정의 구조	…281
02 재정·군사 국가로서의 절대주의의 국가	…284
03 절대왕정의 성립과 발전	…287
04 왕조 전쟁	…303
05 절대왕정의 사회·경제	…306
06 절대왕정의 정치사상과 경제사상	…309
07 절대왕정의 문화와 사유	…317
08 18세기 계몽주의의 발전	…319

**Chapter 03 시민혁명**

01 영국 혁명	…326
02 미국 독립 혁명	…336
03 프랑스 혁명	…342

**Chapter 04 자유주의와 산업화 그리고 내셔널리즘**

01 자유주의의 발전	…374
02 산업혁명 또는 산업화	…390
03 내셔널리즘과 각국의 발전	…403
04 19세기 유럽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425

## 차례

## PART 04 현대 서양 세계의 역사

## Chapter 01 제국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

- 01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438
- 02 동맹과 협상의 성립 ...447
- 03 제1차 세계대전 ...453
- 04 러시아 혁명 ...458

## Chapter 02 베르사유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 0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471
- 0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각국의 정세 ...476
- 03 전체주의의 대두 ...482
- 04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 ...488

## Chapter 03 현대 세계의 변화

- 01 전후의 냉전시대 ...499
- 02 전후 유럽의 부흥과 발전 ...516
- 03 68운동과 새로운 사회 운동 ...525
- 04 경제위기와 그 대응 ...533
- 05 공산권의 대변혁과 최근의 정세 ...537

## PART 05 이슬람 세계의 역사

## Chapter 01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 01 이슬람 세계의 성립 ...547
- 02 이슬람 세계의 발전 ...551

## Chapter 02 오스만 제국의 형성과 발전

- 01 튀르크의 성장과 발전 ...556
- 02 오스만 제국의 성쇠 ...557
- 03 제국주의와 민족운동의 전개 ...563

# 서양사의 구조



Part

# 01

##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Chapter 01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

Chapter 02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Chapter 03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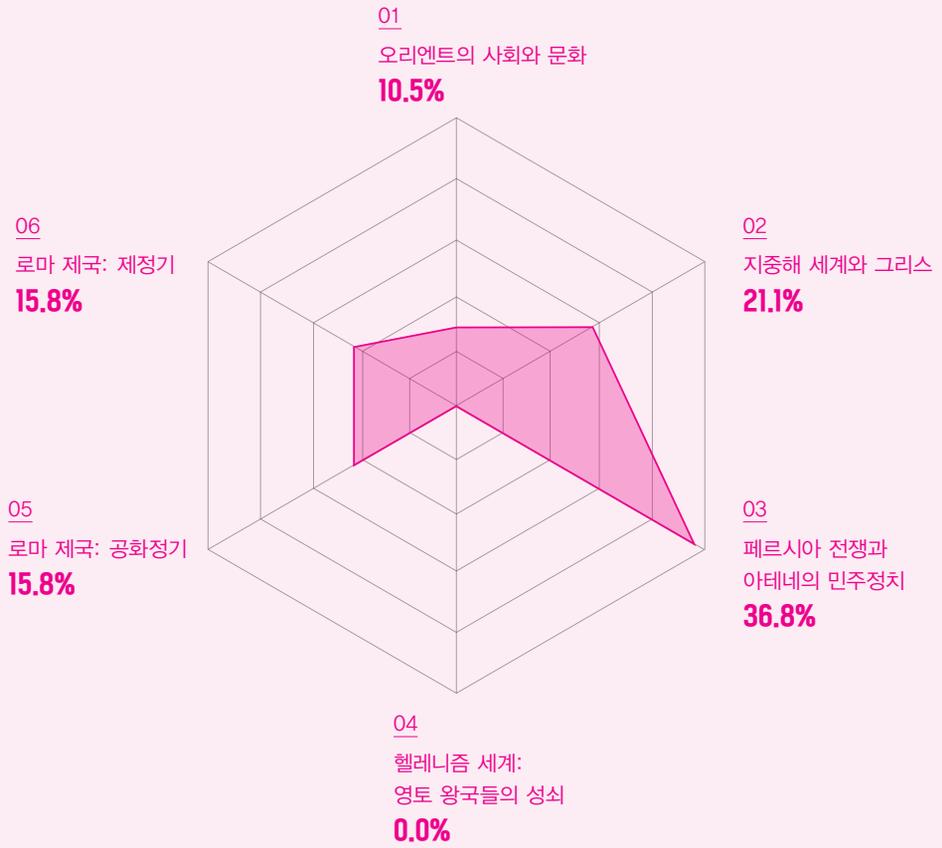
Chapter 04 헬레니즘 세계: 영토 왕국들의 성쇠

Chapter 05 로마 제국: 공화정기

Chapter 06 로마 제국: 제정기



**출제 비중**



출제 주제

연도	Ch 01	Ch 02	Ch 03	Ch 04	Ch 05	Ch 06
2023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			
2022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안	
2021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치체제 논쟁					
2020		크노소스 궁터와 선상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야누스의 기독교 박해</li> <li>• 콘스탄티누스의 경제정책</li> </ul>
2019	아케나톤의 종교혁명		카이로네이아 전투와 코린트(헬레네스) 동맹			
2018		스파르타의 사회구조와 레욱트라 전투의 결과				아우구스투스와 원수정의 구조
2017					로마 사회의 구조와 공화정의 몰락 과정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솔론의 개혁</li> <li>•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li> <li>• 페리클레스의 개혁</li> <li>• 테테스 계층의 혜택</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li> <li>• 투키디데스 『역사』 서술 특징</li> </ul>			
2014					켄투리아회의의 구성 원리	



고대 지중해 세계의 역사





# 오리엔트의 사회와 문화

## 핵심 개념 구조도



## 기출 경향 분석

- 최근에는 2007학년도 19번 문항과 2019학년도 A형 4번 문항으로 출제된 바 있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각각 출제되었다. 빈출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대법의 원형과 길가메시 서사시 등 관련 사료는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이외에 출제된 내용은 이집트 문명의 신왕국 시대, 그 가운데서도 아마르나 시대 (BCE 1355~1330년경)가 출제된 바 있다.
- 주요 문명의 특징과 BCE 2000년기와 1000년기의 제국의 성쇠 과정이 출제될 만하다. 아울러 국제적 조약과 각국의 정치적 인물들도 정확히 외워 두면 좋다. 단 임용 시험인 만큼 수능 수준의 문항 이해나 내용 정리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 01 오리엔트 세계의 역사적 전개

### 1 문명의 탄생

#### (1) 문명 단계로의 발전

- ① 문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정치경제적 구조를 지닌 사회나 그러한 사회·발전 단계를 의미
- ② 문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보통 정착 생활과 농경의 바탕 위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위계와 정치·군사·종교 조직을 갖춘 사회 혹은 그러한 문화적 단계를 가리키며, 그 시작은 대체로 도시와 국가의 등장과 맞물림
- ③ 문명 단계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체로 청동기(靑銅器)의 사용, 문자의 발명, 도시의 출현, 정치조직의 발생, 사회계급의 형성, 조직적인 종교의 발달과 신전 및 신관(神官)의 출현, 선박과 차륜(車輪)의 발명 등이 나타남
- ④ BCE 5000~3000년경 오리엔트 지방을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쳐 급속한 문화발전

#### (2) 문명의 탄생 요인

- ① 자연지리적 조건
  - ㉠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 다양한 식용작물
  - ㉡ 필요한 자원도 주변에 풍부하였고, 교통도 편리
- ② 사회적 조건
  - ㉠ 큰 강 유역에 수로나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을 쌓는데, 촌락단위가 아닌 큰 규모의 사회 전체적 협동이 필요
  - ㉡ 일꾼들의 급식을 위한 다량의 잉여생산이 필요
  - ㉢ 각종의 개량과 발명이 필요
  - ㉣ 치수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감시와 보수작업이 필요, 땅을 수호할 수 있는 군대도 필요
  - ㉤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촌락에서 도시로, 사회에서 국가로, 미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발전이 필요

#### **알아두기**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의 문명론

문명이 성립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1920년대부터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계되어 특히 중요한 인물은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이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에서 알려진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명의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문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장했는지 설명하였다. 즉, 모건(Lewis Morgan)이 문화사적 발전 단계로서의 문명의 개념을 확립시켰다면, 차일드는 문명을 규정하는 구체적 증거의 기준과 문명 구성요소의 등장을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통용되는 문명에 대한 지식체계의 기초를 만들었다. 차일드는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을 따라, 평범한 수준의 문화를 지닌 사회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복잡한 체계로 변화한 것은 경제적 부문에서의 변화가 사회 모든 부문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기술이 발달하고 전문적 장인 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야금술, 문자, 도량형, 대형 공공건축, 장거리 무역, 운송 수단, 전문적 장인, 관개시설, 농경기술의 발달 및 잉여생산과 같은 중요한 문화 요소가 등장하고 보급되었으며,

그 결과 문명이 탄생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고대 문명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농경의 발달에 따른 잉여의 축적이라는 바탕 위에서 서로 맞물리며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계층화와 권력의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고대 문명이 이룩되는 이러한 과정을 도시혁명(Urban Revolution)이라고 불렀으며, 도시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궁극적 요인인 농업과 정착생활의 시작을 가리켜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 하였다. 즉, 차일드는 빙하기의 종식에 따라 환경 조건이 호전되며 농경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잉여가 발생하며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분화와 다양화가 가능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문명이 탄생했다는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설명은 1950년대까지 문명의 기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체계적 설명이었으며, 문명의 기원과 관련해 지금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전적 설명이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의 발달과 전문적 장인 집단의 확립이 반드시 문명 단계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므로 문명의 징표일 수는 있어도 문명을 성립시킨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환경 변화와 농경 사이의 필연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혁명은 문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문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우회적 개념으로서 널리 차용되고 있다.

## 2 역사적 전개

### (1) 형성기(BCE 3000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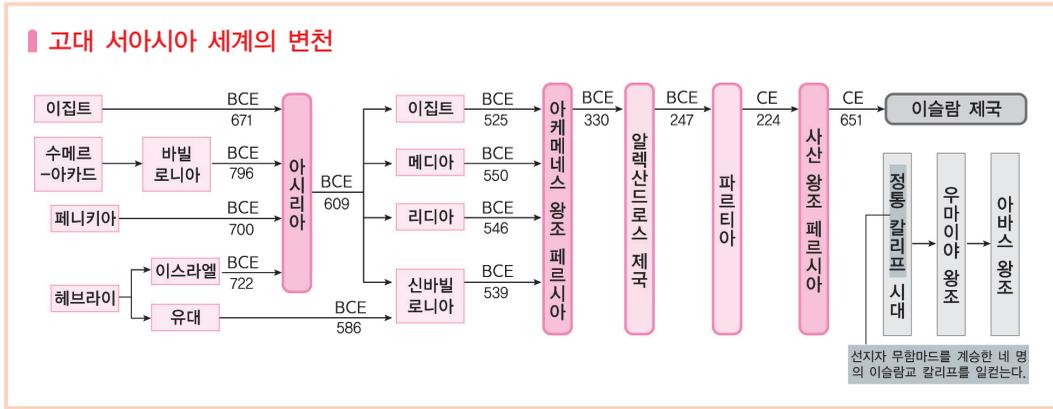
- ① 나일강 하구(河口)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동부 지중해 연안을 포함한 이른바 ‘기름진 초승달(fertile crescent)’ 지역을 중심으로 오리엔트 세계의 정치와 사회구조, 문화의 기본틀이 형성된 시기
- ② 각 문화권별로 비교적 독자적인 발전이 진행된 시기

### (2) 발전기(BCE 2000년기)

- ① 전반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로니아 왕국이 전성기
- ② 후반기에는 이집트에서 신왕국 시대를 맞이하여 전성기
- ③ 소아시아에서는 히타이트, 두 강 상류지역에서는 미탄니, 에게해에는 크레타문명이 발전
- ④ 이 시기에는 외교문서의 교환 등 직접적인 접촉이 활발해져, 오리엔트 세계는 역사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
  - ㉠ BCE 12세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
  - ㉡ 오리엔트 강대국이 모두 쇠퇴, 크레타문명 계승한 미케네 문명 파괴, 해상민족 출현
  - ㉢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동부지중해 연안에서 활발한 해상 활동 전개

### (3) 통일기(BCE 1000년기)

- ① 철기 시대로의 발전과 더불어 에게 문명을 제외한 오리엔트 세계의 모든 지역이 하나의 역사적 세계로 통합
- ② 아시리아 → 칼데아(신바빌로니아 왕국)를 비롯한 4국으로 분립
- ③ BCE 6세기에 페르시아 통일 → BCE 4세기 말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



## 02 이집트 문명

### 1 개설

#### (1) 역사 개관

- ① 나일강 일대가 신석기에서 문명단계로 발전한 것은 BCE 5000~BCE 4000
- ② 고대 이집트 왕조는 고왕국(BCE 2686~BCE 2181), 중왕국(BCE 2040~BCE 1782 또는 BCE 1567), 신왕국(BCE 1550~BCE 1070 또는 BCE 1567~BCE 332)으로 구분
- ③ 고왕국은 나일강 하류의 멤피스에 수도와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
  - ☉ 대표적인 것: 쿠푸왕의 피라미드
- ④ 중왕국 때는 수도가 테베로 옮겨졌지만, 히ك소스인의 침략을 받으며 쇠퇴
- ⑤ 이후 신왕국이 히ك소스인을 몰아낸 후 이집트의 번영을 회복
  - ☉ 이때 집권한 대표적인 파라오: 하트셉수트, 투탕카멘, 람세스 2세 등

#### (2) 역사 변천

- ① 왕조는 흔히 4개의 주요 시기와 그 사이의 과도기로 묶여 나뉘는데, 대체적인 편년은 일치하나 구체적인 시기의 경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
- ② 선왕조 시대(BCE 5000년~BCE 4000년)
  - ㉠ 토템씨족들의 촌락이 도시로 성장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40여 개에 달하는 노메스(nomes)의 지역적 단합이 이루어졌음
  - ㉡ 노메스가 합쳐져 상(上)왕국과 하(下)왕국 성립
  - ㉢ BCE 3000년경 상왕국 메네스왕에 의해 통일왕국 성립
  - ㉣ 메네스왕 등 초기왕조는 반전설적, 그래서 고왕국 시대부터 이집트 역사가 확실함
- ③ 고왕국(BCE 2686~2181): 제3~6왕조에 해당하며 수도는 멤피스



# 민족 이동과 프랑크 왕국

## 핵심 개념 구조도



**기출 경향 분석**

- 게르만의 이동과 여러 왕국들의 흥망은 최근 들어 중세사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간 32문항에 걸친 중세사 문항 가운데 중세 사회의 성립기 이전에 관한 문항은 다소 적은 편이었다. 게르만족의 이동 경로와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왕국의 수립 이후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들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대기적 흐름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378	아드리아노플 전투, 서고트족이 비잔틴 군대 격파
400	프랑크족, 알라만족, 부르군드족, 반달족 및 기타의 게르만 민족이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에 침입
410~412	서고트족이 로마 약탈한 후 갈리아 지방으로 이동
429	서고트족은 스페인과 남갈리아 지역으로 침입
430~500	앵글로-색슨족은 영국, 반달족은 아프리카, 프랑크족은 갈리아, 알라만족은 알자스, 부르군드족은 론 계곡 지역에 각각 침입
461	아일랜드인을 개종시킨 성 패트릭(St. Patrick) 사망
485~526	클로비스와 통치, 프랑크족의 로마 가톨릭 개종
493~526	테오도릭의 통치, 동고트 왕국을 이탈리아에 세움

-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이끈 샤를마뉴와 관련된 문항은 2015학년도 A형 7번과 2012학년도 35번에 걸쳐 두 차례 출제되었다. 하지만 2012학년도 35번 문항의 선지나 콘스탄티누스 기증장 관련 내용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자. 사료와 연관된 문항이 출제된다면 주요 인물에 관한 문항이 출제될 것이므로 메로빙거 왕조의 계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노이스트리아와 아우스트라시아 지역으로 확장해가는 샤를마뉴 시기의 영토 확장 과정과 그의 사후 왕국의 영토가 분할되어 가는 과정도 지도를 통해 꼼꼼히 기억해 두면 좋다.
- 2차 이민족의 이동을 이끈 노르만의 침략 과정과 영국 진출에 관한 문항이 2023학년도 B형 4번으로 출제되었다. 11세기에는 노르만인들의 일부가 멀리 지중해로 진출하여 시칠리아를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고, 남이탈리아에 나라를 세우는 한편, 영국을 정복하여 노르만 왕조를 세우기도 하였다(1066). 노르만의 이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시칠리아로까지 확장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더불어 11세기 이후 영토 수복의 과정이 출제될 확률도 높아진 만큼 1002년 웨섹스의 에설레드 2세(Ethelred II, 979~1016)가 수행한 영토 회복 전쟁, 이에 대항하는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의 전사들이 참가한 대대적인 영국 침공, 금을 주어 침략자들을 달래기 위해 걷은 데인겔드(Danegeld) 등도 꼭 기억해두고 있어야 한다.
- 비잔틴 제국의 정치사 분야에서 유스티니아누스와 헤라클리우스, 그리고 레오 3세가 출제될 만한 인물들인데, 아직 헤라클리우스와 레오 3세 부분은 그들이 처한 대외적 상황과 그들의 정치적 업적과 연관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 가운데서도 벨리사리우스(Belisarius, 505~565), 나르세스(Narses, 478~573) 등 유능한 장군을 파견하여 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 스페인의 서고트 왕국 등을 정복한 것, 외교적 타협을 통해 6세기 중반까지는 발칸반도와 소아시아의 민족들을 복속시켰던 것 등은 지도와 연관해 출제될 수 있는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 01 게르만족의 이동

### 1 게르만의 정치와 사회

- ① 부족사회, 족장, 민회, 종사제도(comitatus)
- ② 대다수가 아리우스파 크리스티교 수용
- ③ 살릭법(Salic law)
  - ㉠ 여자의 토지 상속권과 왕위계승권을 부인한 살리족의 법
  - ㉡ 훗날 프랑크 왕국(Frankenreich)의 시대부터 프랑스는 오직 남계(男系)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살릭법을 내세워, 에드워드 3세의 왕위계승을 거절하고 필립 6세를 왕으로 옹립

#### 사료탐구 『게르마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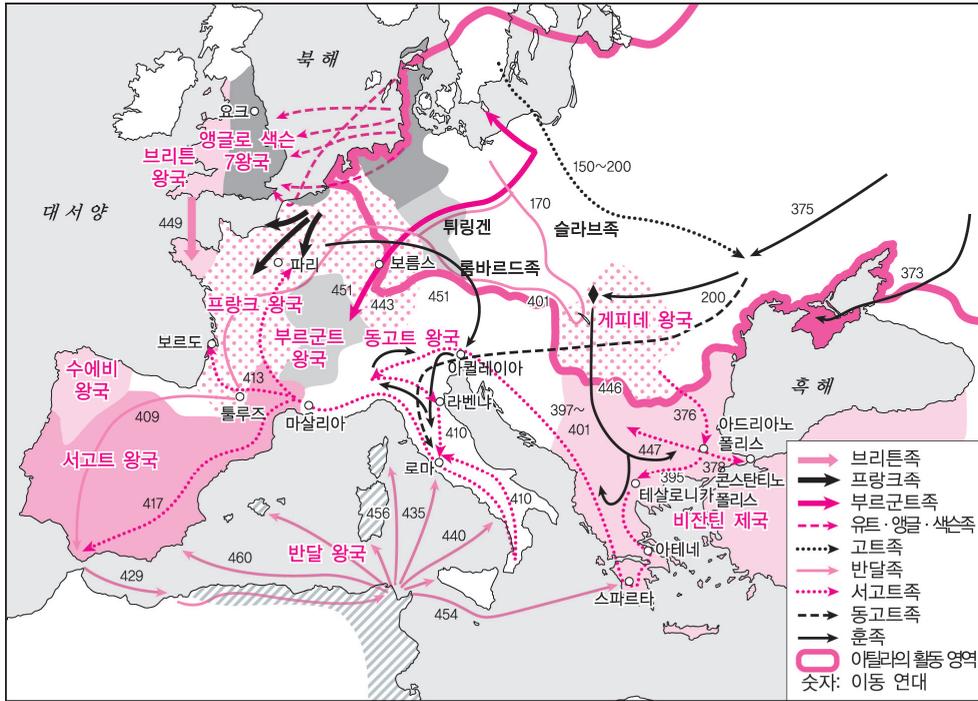
작은 일에는 장로(長老)들이 대사(大事)는 주민 전체(全體)가 말아서 처리한다. 그러나 결정권이 시민들에게 있는 문제들로, 미리 장로들의 감독하에 자세히 조사된다. …… 모여든 그들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무장한 채로 착석한다. 그러나 이런 때도, 구속권을 가진 사제들에 의해서 침묵이 명령된다. 이 욕고, 왕(王), 장로들이 각각, 그 연령의 다소(多少), 신분(身分)의 높고 낮음, 전공(戰功)의 대소(大小), 말솜씨가 좋고 나쁨에 상응하여, 모두들 명령의 힘보다는, 설득의 권위로서 발언을 하거나 경청하게 된다. 만약 그 의견이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청중들은 술렁임으로써 이를 일축(一蹴)시킨다. 그러나 만약 뜻에 들어맞았을 경우에 그들은 프라메어를 서로 때린다. 무기로써 예찬하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찬성의 방법이다. 전쟁에는 용기를 갖고 출정할 것이며 만약 남에게 뒤진다는 것은 장로들의 치욕이며, 장로들의 용기에 미치지 못하면 호종(扈從: 시종)의 치욕이다. 게다가 장로의 죽음을 제쳐놓고 자신은 살기 위해 전열(戰列)에서 후퇴한다면 이는 일생이 치욕이며 면목 없는 일이다. 장로를 지키고 비호하면서 스스로 용감한 행위를 하면 그의 명예로 돌아가는 것이 그 첫 번째 맹세이다. 실로 장로는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호종은 장로를 위해 싸운다. …… 금용일에 종사하며 이득을 내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금지된 경우보다 오히려 완전히 그들은 그 고민에서 벗어난다. 논·밭은 우선 경작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파구스(지방 공동체)에 의해 점유되고, 경작자 상호 간의 지위에 따라서 분배된다. 분배의 용이함은 토지의 넓이가 보증한다. 매년 그들은 경지를 교환하는데, 그럼에도 논·밭은 남아돌았다. 따라서 그들은 과수원을 가꾸고 목장에 울타리를 치고 채소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노동에 의해 토지의 비옥함과 넓이를 얻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토지에는 다만, 곡물을 요구할 뿐이다.

—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 비판적 읽기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는 이동 전 게르만 사회에 대한 초기 사료로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戰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잔존 자료이다. 전체 46장으로 된 이 책에서 그는 게르만인의 풍습, 제도, 경제생활의 실상을 적고 있다. 이 책이 기술될 당시의 게르만인은 수십 개의 부족국가(civitas)로 나누어져 각 부족국가에는 왕 또는 몇 사람의 족장(族長)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평화·이주·선거 등 정책 결정은 자유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전원일치로 결정되었다. 타키투스는 게르만인의 제도와 관습에 관해 위와 같이 적고 있다.

## 2 민족 이동



▲ 게르만의 이동

### (1) 이동의 양상

- ① 이미 3세기부터 게르만족의 일부는 로마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국경 방위에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제국의 영역으로 들어와 하급 관리·농민·용병으로 삶을 영위
- ② 평화적인 이주는 곧 군사적인 침략으로 바뀌었고, 서고트족은 378년 반란을 일으켜 아드리아노폴 전투에서 로마군을 격파하였으며 황제를 죽임
- ③ 396년에는 알라리크의 지휘 아래 그리스를 침범하고 410년 이탈리아에 침입해 3일간 로마시를 약탈
- ④ 대체적으로 4세기 후반(375)경부터 집단적으로 이동, 이는 훈족이 고트족을 압박한 데서 비롯됨
- ⑤ 6세기 초 게르만 세력들의 서유럽 지역 분할이 대체로 마무리
  - ㉠ 최종적으로 왕국의 건설에 성공한 게르만 부족으로는 앵글로 색슨족, 부르군트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 ㉡ 게르만이 건설한 왕국들은 군사적 지배자인 게르만 전사들과 문화적으로 우월한 제국 내 거주민들이 타협해서 결성한 이질적인 공동체
  - ㉢ 로마의 행정 기구나 각종 제도가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인 관리들로 하여금 그 운용을 담당하게 함

### 03 십자군 전쟁(1096~1270)

#### 1 재정복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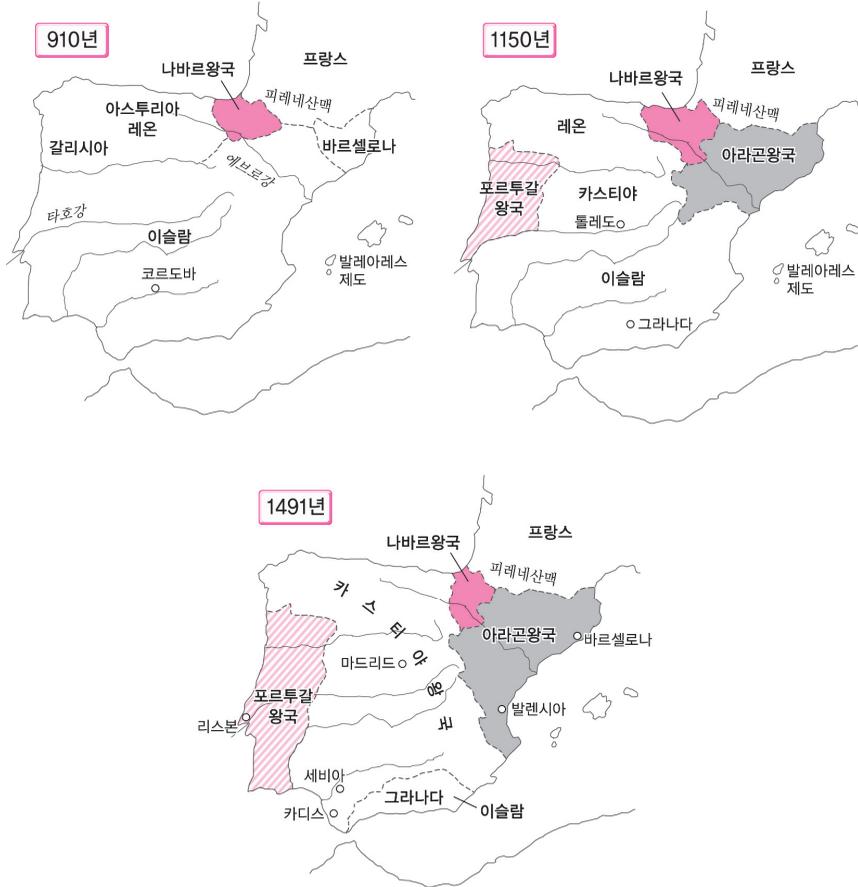
##### (1) 레콩키스타(Reconquista)

- ①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로 ‘재정복’을 의미
- ② 이는 우마이야 왕조의 이베리아 정복으로, 잃어버린 가톨릭 국가의 영토를 회복했다는 의미

##### (2) 에스파냐

- ① 반도 북부의 크리스티교 국가는 11세기 전반 ‘코르도바(Cordoba) 교주국’ 공격
- ② 크리스티교 국가들의 영토 확장
- ③ 정복 과정에서 포르투갈 왕국 탄생(12세기 초)
- ④ 13세기 중엽에는 그라나다(Granada) 지방 외의 모든 영토 회복
- ⑤ 재정복 운동의 동력 : 클뤼니 수도원 지원, 교황의 적극적 후원, 프랑스 귀족들의 참전

#### ■ 에스파냐의 재정복과정(再征服過程)



**알아두기** 톨레도(Toledo)

5세기 말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서고트 왕국의 수도로 기능하였다. 8세기 이슬람에 점령, 10세기 코르도바 칼리프국의 북부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1085년 레온-카스티야 왕국의 알폰소 6세가 탈환하여 연합 왕국의 수도가 된 후, 가톨릭 왕국의 전초 기지이자 카스티야 왕국의 정치·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스 고전 번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다가 1560년 펠리페 2세가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긴 후 쇠퇴하였다.

(3) 시칠리아

- ① 노르만 기사들이 비잔틴으로부터 남부 이탈리아를 회복(1054~1071), 이슬람으로부터 시칠리아를 회복(1091)
  - ㉠ 로베르 기스카르 남부 비잔틴령 회수(1071)
  - ㉡ 동생 로제르는 시칠리아 정복(1091)
- ② 노르만 기사들은 교황에게 신중하는 대신 시칠리아 왕을 자칭
  - ㉠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영토가 합해진 양(兩)시칠리아 왕국 성립(1130)
  - ㉡ 시칠리아 민중 반란(1282) 이후 시칠리아섬은 아라곤의 지배를 받게 됨
  - ㉢ 이후 양시칠리아 왕국은 남부 이탈리아의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섬의 시칠리아 왕국으로 분할

**2 십자군(Crusades) 전쟁의 배경**

(1) 배경

- ①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 예 개척·개간 사업, 엘베 동쪽 지역에 대한 식민 운동 등
- ② 대외적: 이슬람 세계에 대한 반격으로 그 분출구를 찾게 됨
- ③ 개혁파 교황은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동서 그리스도 세계를 다시 통합,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함
- ④ 동로마의 구원 요청
  - ㉠ 셀주크 튀르크의 바그다드 점령
  - ㉡ 셀주크 튀르크의 알프 아르슬란(1063~1072)이 1071년 만지커트 전투에서 비잔틴군에 승리 후 비잔틴 황제 로마누스 4세를 포로로 삼음 → 니케아를 점령하고 수도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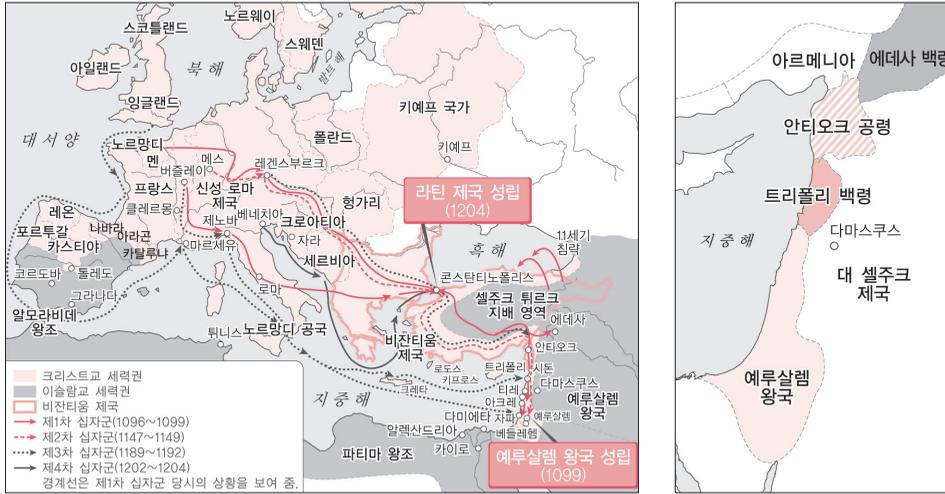
(2) 십자군의 동기 **기출** 2006-22

- ① 알렉시우스 1세의 구원 요청으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 개최(1095)
- ② 성지 회복을 호소하며, 교황의 영도하에 성지탈환을 도모

**사료탐구**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 연설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그리스도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 3 십자군 전쟁의 경과



#### (1) 제1차 십자군(1096~1099) 기출 2009-35

- ① 유일하게 성지 회복 성공, 4개의 봉건 왕국 성립
- ② 농민 십자군: 비공식 십자군, 은자(隱者) 피터의 주도, 튀르크에게 격멸
- ③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쳐 소아시아의 니케아 함락
- ④ 라틴 왕국 건설: 전형적인 봉건제 국가 수립, 성지회복 목적 달성한 유일한 십자군

에데사 백령(1097~1144)	2차 십자군의 배경, 플랑드르백 보두앵이 창건
안티오크 공령(1098~1268)	로베르 기스카르의 아들 보에몽이 창건
예루살렘 왕국(1099~1187)	3차 십자군의 배경, 고트프루아 드 부용이 왕으로 선출
트리폴리 백령(1099~1289)	툴루즈백 레이몽과 그의 아들

#### (2) 기사단

- ① 사원기사단(Knights Templar)
  - ㉠ 예루살렘의 순례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솔로몬 사원 근처에 설치
  - ㉡ 교황의 정식 인가(1128), 14세기 초반 필립 4세에 의해 해체
- ② 병원기사단(Knights Hospitaller)
  - ㉠ 11세기 초, 순례자를 위해 예루살렘의 세인트 존 병원에 부설
  - ㉡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몰타섬 등으로 이동, 1798년 나폴레옹이 점령할 때까지 존속
- ③ 독일기사단(Teutonic Knights)
  - ㉠ 1190년 제3회 십자군이 아콘을 포위하였을 때, 뤼베크·브레멘 시민들이 부상병 구호를 위해 세운 병원에서 기원
  - ㉡ 발트해 동부 해안의 이교도와의 투쟁에 헌신, 1525년 해체 당시 그 영지는 프로이센으로 계승

(3) 제2차 십자군(1147~1149)

- ① 배경 : 모술이 북시리아를 통일하고 알레포의 태수인 장기(Zangi)가 에데사 백령 정복(1144)
- ② 경과 : 프랑스 루이 7세, 독일 콘라트 3세 등이 참전했으나 완전히 실패

(4) 제3차 십자군(1189~1192)

- ① 배경 : 12세기 후반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한 살라딘이 1187년 하틴(Hattin) 전투에서 승리해 예루살렘 함락
- ② 참전 : 영국 리처드 1세(Richard I) 사자심왕, 프랑스 필립 2세(Philippe II) 존엄왕,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I) 바르바로사
- ③ 결과
  - ㉠ 시리아의 아크레(Acre) 점령 : 이후 필립 2세 귀국, 리처드 1세만 예루살렘 공격
  - ㉡ 리처드-살라딘(Saladin) 협상 : 이슬람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 보장

 **알아두기** 살라딘 연대기

1138년	티크리트의 쿠르드족 족장 아이유브의 아들로 태어남
1152년	시리아의 군주 누르 앳딘의 군대에 들어감
1164년	십자군과 첫 대면하고 세 번에 걸친 이집트 전선에서 용맹을 떨침
1169년	삼촌 시르쿠의 부장으로 활약하고 이집트로 건너감
1171년	파티마 왕조의 군주를 타도하고 이집트를 아이유브 왕조 개창
1174년	누르 앳딘이 사망하자 세력을 확대하고 다마스쿠스를 점령
1183년	알레포 점령
1186년	모술 점령
1187년	성도 예루살렘을 정복
1189년~1191년	아크레 공방전, 결국 아크레 함락
1192년	사자심왕 리처드와 평화협상
1193년	짧은 투병 기간을 거쳐 다마스쿠스에서 영면

단테는 그의 저서인 『신곡』에서 “가장 별을 가볍게 받을 세 사람”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살라딘을 꼽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살라딘은 크리스토포콜로에게서조차 “가장 이상적인 군주”, “가장 가벼운 별을 받아야만 하는 이교도”로 묘사되기도 한다.

(5) 제4차 십자군(1202~1205) 기출 2017-B형4

- ① 인노첸티우스 3세의 주도로 결성되었으나, 주요 국왕들은 불참하고, 플랑드르백 보두앵을 위시한 북프랑스 기사들의 호응으로 출발
- ② 과정
  - ㉠ 베네치아 상인과 협력하여 자라(Zara)시 회복
  - ㉡ 비잔틴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 라틴 제국 수립(1204~1261)

# 선생님을 위한 서양사



2022 한국 브랜드 만족지수 1위  
교육(교육서비스) 부문 1위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교육서비스 부문 수상



2021 조선일보 국가브랜드 대상  
에듀테크 부문 수상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1위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수상



2020 한국 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수상



2016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교육(교육서비스) 부문 1위



2019 한국 우수브랜드  
평가대상 수상



브랜드스타 BSTI  
브랜드 가치평가 1위

[www.pmg.co.kr](http://www.pmg.co.kr)

교재관련 문의 02-6466-7202

학원관련 문의 02-816-2030

동영상강의 문의 02-6466-7201

PMG 박문각



ISBN 979-11-6987-076-4  
SET 979-11-6987-073-3

정가 39,000원